

광주FC “무조건 공격”

22일 강원과 K리그 챌린지 준PO... ‘무승부=패’ 사활 건 단판

남기일 감독대행 “역전승의 기억 되살려 클래식 복귀 하겠다”

광주 FC의 전략은 ‘무조건 공격’이다. 4강에 안착한 광주 FC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원주종합운동장에서 강원 FC와 뜨거운 한판 승부를 벌인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1차 관문인 K리그 챌린지 준플레이오프가 치러지는 것이다.

광주 FC에게는 승리만이 필요하다. 단판 승부로 벌어지는 준플레이오프에서 무승부가 나올 경우 상위팀이 플레이오프 티켓을 얻는다. 광주가 4위, 강원도 3위로 정규시즌을 마감했기 때문에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 강원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에게는 승리 빼고는 경우의 수가 없다.

광주 남기일 감독대행<사진>의 강원전 전략은 ‘무조건 공격’이다.

남 감독대행은 “초반 성장통을 겪으면서 중반 이후 내실을 튼튼히 하는 축구를 하려고 했고, 우리 팀만의 색깔을 내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였다.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우리의 경기를 할 것이다. 한 명이 아닌 팀워크로 여기까지 온만큼 무장된 정신력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며 “강원도 공격적인 팀이라서 서로 맞붙으면 골도 많이 났고 재미있는 경기를 했었다. 감독 입장에서도 빠르게 골이 움직이고 전세가 되니까 강원과의 경기는 흥미롭고 더 집중이 됐다. 이번에도 공격적인 싸움을 하겠다”고 밝혔다.

‘무승부=패’라는 불리한 규칙은 오히려 광주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 원동력이라는 게 남 감독대행의 생각이기도 하다.

남 감독대행은 “강원입장에서는 오히려 비겨도 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고양전을 하면서 이 부분을 느꼈다.



전반전에 대구가 안양에 앞서 있었다. 광주 입장에서는 비겨도 4강에 진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선수들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비겨도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반 경기가 쉽지 않았다”며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이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고 상대를 압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강원과의 경기에서 만든 ‘기분 좋은 기억’도

광주의 자신감을 더해준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광주가 강원에게 2승1무1패로 앞서있다. 특히 4-2 대역전승의 상대가 강원이었다. 광주는 지난 28라운드 강원과의 원정에서 후반에만 4골을 몰아넣으며 4-2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남 감독대행은 “지난 강원 원정에서 역전승의 좋은 기억이 있다. 그 당시 플레이오프 때 강원과 다시 만나면 좋겠다는 농담을 했는데 현실이 됐다. 반드시 강원전에서 승리하고 안산과 싸우고 싶다. 우리만의 축구를 하기 위해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포스팅 금액 얼마?

MLB 사무국에 포스팅 요청... 이번주 가닥

KIA 에이스 양현종<사진>의 미국진출이 본격화 된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양현종의 포스팅을 신청했다. KBO는 미국메이저리그(MLB)사무국에 MLB 30개 구단에 양현종의 포스팅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MLB 사무국은 30개 구단에 양현종의 포스팅 신청 사실을 알렸다.

양현종의 포스팅이 공식 절차를 밟으면서 미국 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주말 정도면 양현종의 내년 시즌 운과이 드러날 전망이다.

포스팅 요청 후 나흘간 비공개 입찰이 진행된다. MLB 사무국은 이 절차가 끝나면 최고액을 써낸 구단을 KBO에 통보하게 된다. 최고액과 구단을 건네받는 KIA와 양현종은 4일 이내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 결정, KBO를 통해 MLB 사무국에 통보해야한다.

KIA 구단과 양현종이 응찰액을 수용할 경우에는 최고액을 응찰한 MLB 구단이 양현종과 1개월간의 독점계약 교섭권을 갖게 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양현종의 공시는 철회된다. /김여울기자 wool@

9년만에... “그래 이 맛이야”

김초롱, 연장 접전끝 LPGA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우승... 통산 3승

재미동포 크리스티나 김(30·한국명 김초롱)이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고 9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크리스티나 김은 17일(한국시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클럽 데 골프 멕시코(파72·6804야드)에서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연장전까지 추격한 평산산(중국)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크리스티나 김은 이날 보기 5개를 버디 6개를 적어 1언더파 71타를 적어내며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했다.

평산산은 이날 보기는 1개만 적어내고 버디 5개, 이글 1개를 잡아내며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던 크리스티나 김을 따라잡고 연장전으로 몰고갔다.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1차에서 둘은 나란히 파를 기록했으나 2번째 대결에서 크리스티나 김은 파를 기록, 보기를 한 평산산을 따돌리고 9년 만에 L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04년 룡스드레스챌린지 우승을 포함하면 개인 통산 3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11세에 골프를 시작한 크리스티나 김은 미국과 유럽 대표팀의 국가대표인 솔하임컵에 세 차례(2005·2009·2011년) 출전하는 등 활약하며 쾌활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무렵 우울증에 빠지면서 부진의 시기를 보냈다. 이날은 밝은 웃음과 함께 유쾌하고 힘찬 세리머니를 펼치며 9년의 침묵을 깨고 되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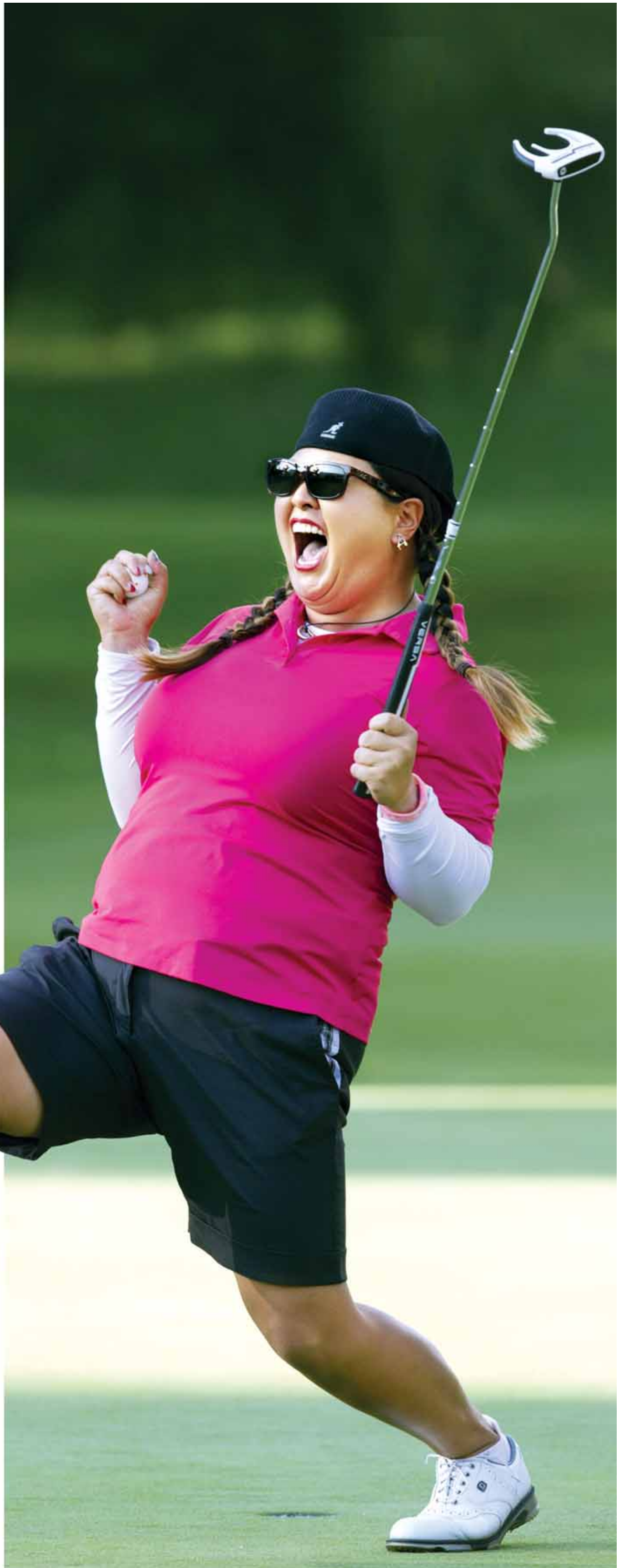
은 우승을 만끽했다. 세계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이날 4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이로써 박인비는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2년 연속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박인비는 이 대회에서 올해의 선수 포인트 9점을 보태 226점을 쌓으며 1위인 스테이시 루이스(미국·229점)와의 격차를 3점 차로 좁혔다.

루이스는 최종합계 3오버파 291타를 기록해 공동 28위에 머물렀다. 둘의 대결은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은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적어내며 브리트니 린시킴(미국)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올해 LPGA 투어 신인왕을 받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는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를 쳐 공동 9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앗싸~” 재미동포 김초롱이 17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멕시코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연장 두번째 홀에서 우승을 확정 짓는 파퍼트를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